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현황 비교 연구

—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

박시균 · 최지은(군산대)

〈목 차〉

- | | |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과 관련된 제반 교육 개선방안 |
| 2.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비교 조사 | 4. 결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¹⁾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구가 그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및 (한)국어교육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고 모국어가

1) 본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 분들의 지적과 조언으로 본 논문이 한 단계 나은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잘못된 부분은 오롯이 필자들의 몫이다.

한국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국어교육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고 모국어가 한국어이거나 적어도 한국어가 어머니의 모국어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한 L1(제1언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습득과 관련하여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는 동시에 이르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한국 선생님 밑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이중 언어적 환경이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정의 및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 모국어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한국어교육 환경에서 한국어교육을 받는 것과는 달리, 부모가 한국인인 일반 아이들과 함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국어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어 숙달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결국 정규 국어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한국어 숙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자녀들이 국어교육과 함께 한국어교육을 받아야 할 요인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습득과 관련한 이러한 복잡 미묘한 상황 때문에 이들의 독특한 언어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상을 파악하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들이 언어교육이나 학교교육,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다문화가정’ 내지는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규교육기관 내에서 국어교육을 받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한)국어교육 등을 다룬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박시균 외 2012, 장덕희 외 2010, 전재일 외 2008)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제 학교생활, 국어교육 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일반 가정 자녀들의 생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자녀까지도 설문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두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현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한국어교육이 아닌 생활교육 및 국어교육을 받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현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문화연구정책학교²⁾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³⁾에 입학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어교육을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교육기관인 학교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아주 적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 이외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⁴⁾에서 어머니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준별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모국어교육을 같이 해 주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요구된다.

2014년 초·중·고등학교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67,465명으로 2010년 대비 124.6%가 증가했다.⁵⁾ 학교 급별 비율로 보면 2010년에는 초등학교 78.6%, 중학교 16.0%, 고등학교 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2014년에는 초등학교 71.5%, 중학교 18.5%, 고등학교 10.0%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자녀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2) 이들 다문화연구정책학교는 국어과 교사를 중심으로 방과 후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들은 극소수(서울 경동초, 부산 주감초, 인천 박문유치원, 광주 광천초, 대전 비래초, 경기 가평미원초, 경기 안산양지교, 충남 부리유치원, 전북장수초, 전남천태초, 경북 우곡초, 경남 안산중 등)에 불과하고 다문화교육정책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코시안 대안학교, 온누리안 대안학교, 아시 아공동체 대안학교 등이 있다. 이들 대안학교는 한국어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가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준별 한국어교재, 시청각교재, 워크북 등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 이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4) 대표적인 기관이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어머니와 함께하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도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서서히 실시되는 추세이다.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생활 및 (한)국어교육 현황 및 실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비교 조사

2.1. 조사방법

2.1.1. 피조사자 선택 및 조사형태

본 조사는 2012년 6월부터 12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중심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⁶⁾. 조사는 한국어교육 전공자 3인이 담당하였다. 양적 평가인 설문조사를 주 조사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질적 평가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조사 내용이 명확

5)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각급 학교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2012	33,792	43.2	9,647	100.4	3,515	116.4	46,954	56.3
2014	48,225	42.7	12,506	29.6	6,734	91.6	67,465	43.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 2014)

6) 본 조사는 전국적인 조사가 아닌 전북지역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이므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생각과 수행 면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심층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전북권의 교육청을 통하여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건네주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등을 중심요소로 고려하면서 이들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자신들이 다문화가정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추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래의 사례 세 가지는 조사자들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러 학교에 방문했을 당시 직접 겪었던,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알리기를 원치 않거나 조사자체에 응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사례 A⁷⁾

A초등학교에 방문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듣고 설문조사를 중단했던 사례가 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으로 어머니가 중국 국적의 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아이에게 어머니의 국적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사례 B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담당교사가 지도학생의 다문화가정 자녀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꾼 후 귀화를 하고, 학교방문은 다른 가족이 대신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이다.

7) 연변의 한국어(조선어)는 이주 당시의 언어를 보존함과 동시에 북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는 음운, 억양, 어휘, 문법 등의 면에서 이질성을 갖고 있다(마금선, 2009).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에 대략 20만명의 조선족들이 중국 관내지구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자신의 언어인 조선어를 잊어버려 조선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졌다(안병삼, 2008). 결혼 이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결혼이민자의 95.29%가 '있다'라고 응답해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박주형, 2010).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인 중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조사자에 포함시켰다.

사례 C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것이 이미 노출되어 있지만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다문화와 관련한 인터뷰나 설문조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중 자녀가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알고 학교에 항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편이었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설문조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설문조사는 학교 및 부모, 자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대상은 군산, 전주, 익산 지역 등의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일반가정 자녀에 대한 조사 지역도 군산, 전주, 익산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차이 없이 동등하거나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전북권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건네주고 수거하는 형식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 및 저학년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2.1.2. 피조사자 수 및 설문지 내용

설문에 응한 총 피조사자는 1,037명이다.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총 855명으로 유아, 초등 저학년 307명, 초등 고학년, 중고등 548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182명으로 유아, 초등 저학년 65명, 초등 고학년, 중고등 117명이다. 거주 지역으로는 군산, 전주, 익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유아,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중고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유아, 초등 저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나머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설문지에 대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 지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주

고 수거하거나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8). 설문지는 모두 한국어로 작성하였다.

2.2. 결과분석

2.2.1. 문항분석

문항 분석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문항분석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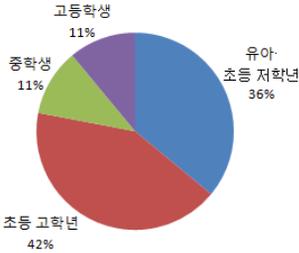
구분		문항요인
기본사항	인적사항	- 학년/성별/거주 지역/소속
	학교생활	- 학교평균성적/국어성적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도움이 되는 점 - 외모/정체성 - 만족도
학교교육 현황 및 생활환경	학교 내의 학습 환경	- 별도의 학습지도/국어지도 경험 및 필요성 - 수업 이해도 - 학교 외 국어교육
	가정 내의 언어 및 생활환경	- 어머니의 학교생활 이해도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¹⁰⁾
학교교육에 바라는 점	학습지도	- 학교수업 외 필요한 교육

- 8) 설문지를 유아,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중고등용으로 분류한 것은 유아, 초등 저학년 설문지의 어휘를 좀 더 쉽게 만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다. 결과분석에 있어서도 패턴 및 세부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묶어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 유아, 초등 저학년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9) 실제 설문조사는 더 많은 문항 요인과 설문문항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집중해서 진행하기 위해 문항 요인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없는 요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0)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 모두 학원선생님으로부터 방과 후에 학습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비율을 보면 72% 대 39%로 일반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여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는 일반가정 자녀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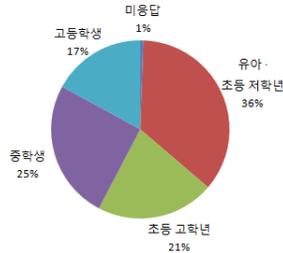
2.2.2. 조사결과분석

기본사항부터 학교교육에 바라는 점까지 '설문지 문항 분석'의 모든 요소를 망라한 다양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조사 및 결과분석이 이루어졌다.

① 응답자 학년 구성 및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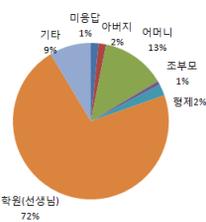
<그림 1> 일반가정 자녀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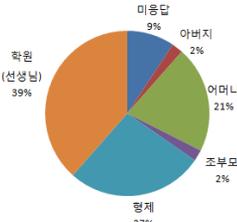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는 총 응답 대상자 중 유아, 초등 저학년이 36%, 초등 고학년, 중·고등생이 64%의 비율로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응답 대상자 중 유아, 초등 저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이며, 초등 고학년, 중·고등생 63%, 미응답 1%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2>).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학생들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군산, 전주, 익산 등의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가정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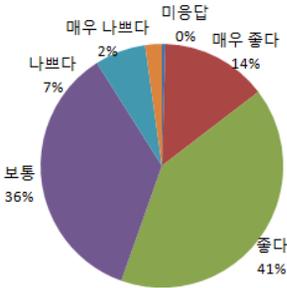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

11) 그래프에서 '초등 저학년'이 나타내는 결과는 '유아'의 설문조사 결과까지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 각 급 학교별 비교를 하지 않고 크게 일반가정 자녀 대 다문화가정 자녀로 묶어 비교를 하였는데 추후의 논문에서는 두 그룹에 대해서 각 급 학교별로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를 다룰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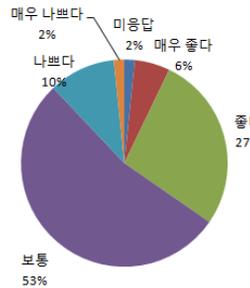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역도 군산, 전주, 익산 등의 전북 지역으로 한정해 진행하였다. 남녀 성비는 각각 50%이다.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공히 대부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는 국·공립 학교에 재학 중이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응답자 중 국제학교라고 응답한 5%의 아이들은 종교적으로 결혼한 이주여성의 자녀로부터 나온 답변이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학교 평균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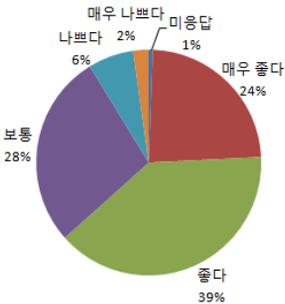


<그림 3>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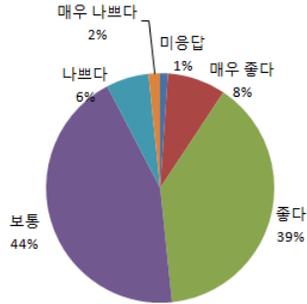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가정 자녀

③ 학교 평균 국어 성적



<그림 5> 일반가정 자녀



<그림 6>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중 성적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 성적이 '좋다'¹²⁾는 응답이 55%, 다문화가정 자녀는 33%로 일반가정 자녀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보통'이 53%로 일반가정 자녀(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나쁘다'는 응답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12%로 일반가정 자녀(9%)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 4>). 일반과목의 성적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전반적으로 앞섬을 본 조사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국어성적 역시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는 성적이 '좋다'는 응답이 63%로 '보통'이나 '나쁘다'라는 항목의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좋다'는 응답이 47%로 일반가정 자녀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5, 6>). 특히 '매우 좋다'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는 8%의 응답률을 기록한 데 비해 일반가정 자녀는 24%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들은 한국어의 객관적인 성적도 높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 역시 44%로 높게 나타나(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28%) 한국어를 자신 있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 결과는 '생활 한국어'의 경우 일반가정 자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학습 한국어'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자녀와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적이 '나쁘다'라는 응답은 모두 8%로 적게 나타났다. 성적 측면에서 보면 본 설문에서 '보통'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주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양쪽 집단 자녀의 실제 성적이 이렇다고 곧바로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학습 한국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어 성적도 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 평균 성적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로 반응한 응답자가 33%임에 비해, 학교 평균 국어 성적이 '좋다', '매우 좋다'로 반응한 응답자가 47%에 이르는 것은 학교 평균 성적에 비해서는 국어 성적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

12) 본 논문에서 그래프의 결과에 대해 서술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좋다'에 대한 결과 수치는 '매우 좋다'의 결과를 포함하고 '나쁘다'에 대한 결과 수치는 '매우 나쁘다'의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13) 윤경동(2011: 34-35)에 따르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쉽다고 보는 한국어영역은 '말하기(33.9%)', '듣기(28.8%)' 순이고 어렵다고 보는 한국어 영역은 '문법', '어휘' 순으로 나타나 '생활 한국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문법(32.2%)', '어휘(30.6%)'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 한국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가정 자녀 역시 학교 평균 성적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로 반응한 응답자가 55%임에 비해, 학교 평균 국어 성적이 ‘좋다’, ‘매우 좋다’로 반응한 응답자가 63%에 이른다.

성적에 대해서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 <표 3>과 같이 ‘학교 평균 성적’과 ‘학교 국어 성적’ 모두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를 보였다. 즉 학생이 일반가정 출신인가 혹은 다문화가정 출신인가가 일반과목과 국어과목 성적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 통계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일반적으로 성적에서 뒤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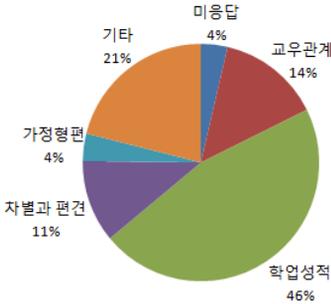
<표 2> ‘학교 평균 성적’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2.155	5	.000
우도비	33.814	5	.000
선형 대 선형결합	21.512	1	.000
유효 케이스 수	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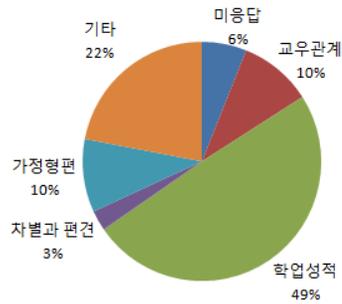
<표 3> ‘학교 평균 국어 성적’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1.250	5	.000
우도비	34.831	5	.000
선형 대 선형결합	15.255	1	.000
유효 케이스 수	1035		

④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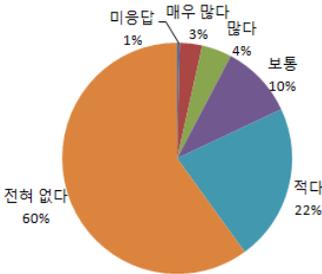
<그림 7>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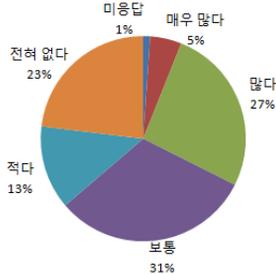
<그림 8>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모두 50% 이상이 학교 성적이 보통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문제를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7, 8>). 이는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한국의 교육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다음이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가 교우관계(14%),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가정형편(10%)과 교우관계(10%)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친구문제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가정 자녀의 응답에서 특이한 점은 차별과 편견(11%)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따’ 문제로 대표되는 따돌림의 문제가 학교생활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14%가 나왔던 ‘교우관계’도 ‘차별과 편견’이라는 응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 특히 ‘따돌림’과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모두에서 기타 의견이 20% 이상으로 많았는데 통학문제나 단조로운 학교생활 등을 응답하였다.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⑤ 따돌림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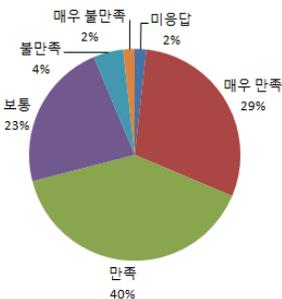
<그림 9>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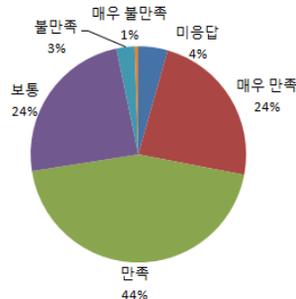
<그림 10>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에 60%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는 특히 외모 때문에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에 23%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학교생활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10>). 하지만 이 '따돌림'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외모 등의 차이로 그냥 같이 안 어울리는 정도의 '무관심적' 따돌림에 비해서 일반 가정 자녀들끼리의 따돌림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따돌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가 <그림 7>에서 '차별과 편견'이 높은 비율(11%)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⑥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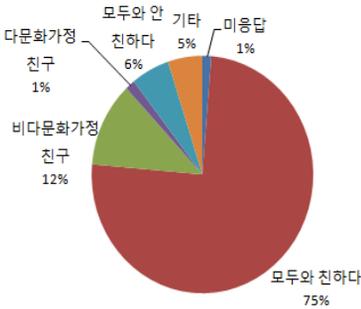


<그림 11>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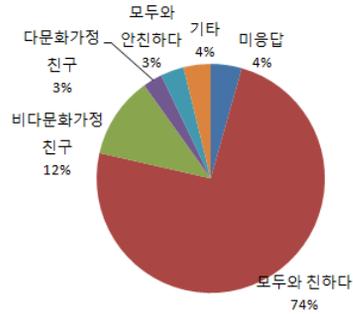


<그림 12> 다문화가정 자녀

⑦ 학교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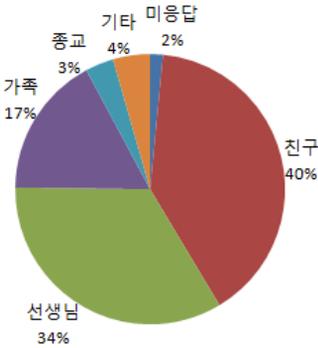


<그림 13>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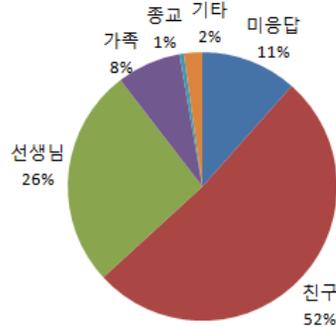


<그림 14> 다문화가정 자녀

⑧ 학교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림 15>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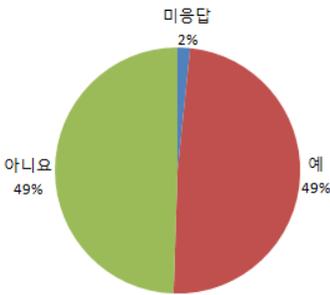


<그림 16> 다문화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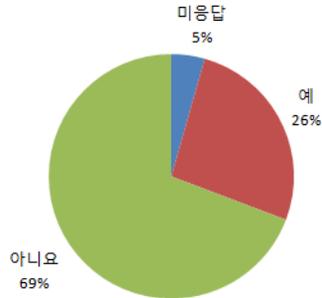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모두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보통'을 포함하여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1, 12>). 이는 <그림 13, 14>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에 관계없이 모두 친구로 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따돌림'의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적어도 '따돌림'에 관계된 일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다문화가정의 구별 없이 서로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친구(52%)를 꼽아 일반 가정 자녀(40%)보다 그 응답률이 높았다(<그림 15, 16>). 또한 선생님을 꼽은 비율은 일반가정 자녀 34%, 다문화가정 자녀 26%로 일반가정 자녀들이 선생님을 학교생활을 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교우관계(10%)라고 응답했던 것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친구를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학교에서 별도의 학습지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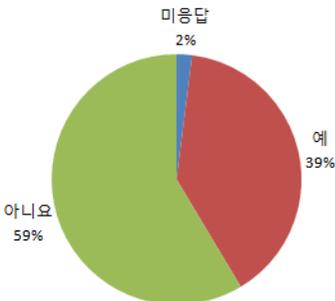


<그림 17>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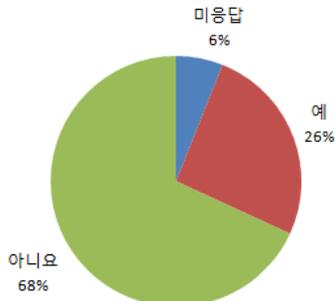


<그림 18> 다문화가정 자녀

⑩ 학교에서 별도의 국어지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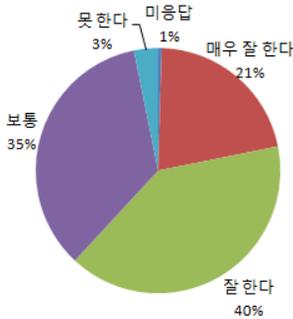
<그림 19>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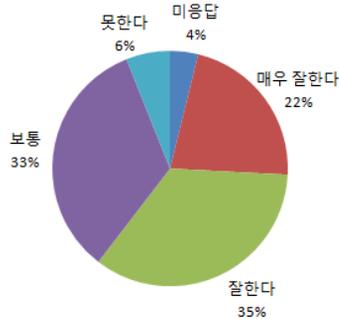
<그림 20>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학교성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별도의 학습 지도, 국어지도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모두 대부분 50% 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말하였다(<그림 17~20>).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만을 위한 별도의 지도가 학교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결과이다.

⑪ 학교수업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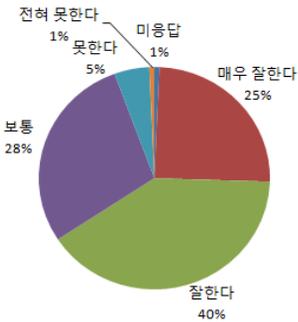
<그림 21>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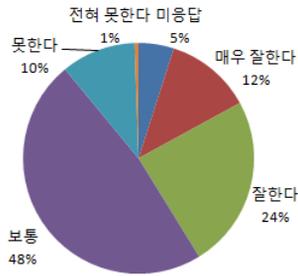
<그림 22>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수업 이해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객관적인 성적에 근거하지 않고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학교 수업을 잘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잘 이해한다’의 응답에서 두 집단 간에 5%의 차이가 있었고(‘매우 잘한다’를 포함하면 4%),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잘 이해 못 한다’는 응답이 6%로 일반가정 자녀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그림 21, 22>). 이로 보아 ‘학교수업 이해도’에서는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⑫ 어머니의 학교생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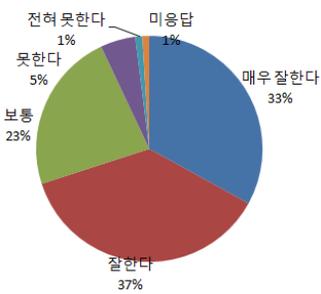
<그림 23>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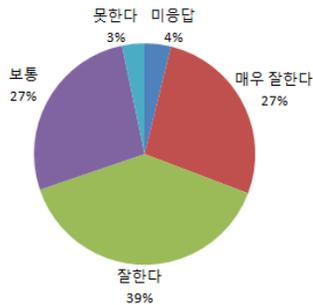
<그림 24>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생각을 물었다. 일반가정의 경우 65%가 이해를 '잘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36%만이 '잘 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일반가정 자녀(28%)에 비해 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3, 24>). '못 한다'의 비율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11%로 일반가정 자녀의 6%에 비해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학교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⑬ 어머니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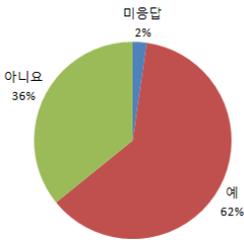
<그림 25>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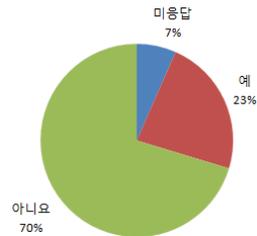
<그림 26>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는 일반가정(70%), 다문화가정(66%) 자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어머니와의 일반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26>). 다만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질 측면에서까지 일반가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⑭ 학교 외 국어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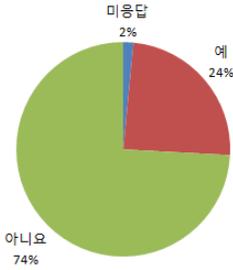
<그림 27>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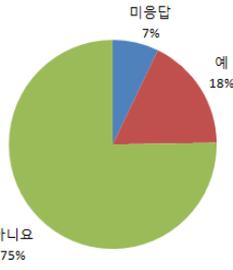
<그림 28>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외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일반가정 자녀는 6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는 23%만 있다고 하고, 7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7, 28>).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국어 과외교육을 받은 경우로 보이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 두 집단의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김승권 2010, 박시균 2013)가 이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3)의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 분석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로 나타난 것이 학업중단이었다. 학업중단의 이유 중 18.6%가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가정 형편을 이유(19.5%)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⑮ 별도의 학습지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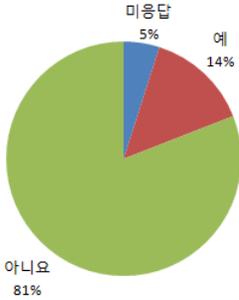


<그림 29>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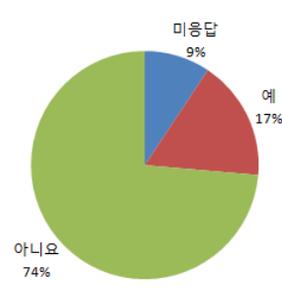


<그림 30> 다문화가정 자녀

⑯ 별도의 국어지도 필요성



<그림 31> 일반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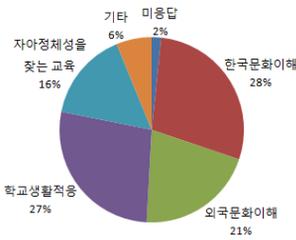


<그림 32> 다문화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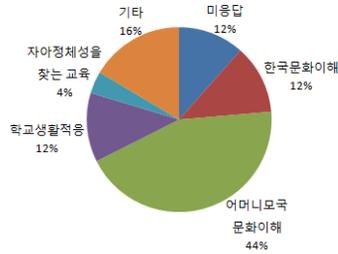
학교 내의 별도의 학습지도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 내에서의 개별 학습지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가정 24%, 다문화가정 18%로 낮게 나타났으며(<그림 29, 30>), 개별적 국어지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일반가정이 14%, 다문화가정 17%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31, 32>). 특히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항이지만 본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응답자의 84%가 다문화가정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⁴⁾ 다문화가정 자녀이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한 학습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적 격차가 있는 본 논문의 조사 결과

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방과 후 한국어 교육 등 별도의 학습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배치된다. 낮은 성적이라는 실제적인 결과(<그림 3~6>, <표 2, 3>)와 보충 학습이 필요 없다는 이들의 생각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⑰ 학교수업 외 필요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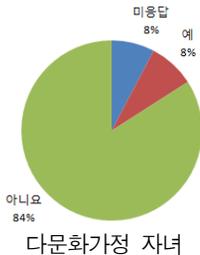
<그림 33> 일반가정 자녀



<그림 34>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수업 외에 필요한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머니의 모국문화이해(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그림 34>). 그 다음으로 기타(진로교육 등) 16%, 한국문화이해와 학교생활적응 12%, 자아정체성을 찾는 교육 4%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본 조사에서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 대해¹⁶⁾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다

14) '다문화가정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15) 이는 자신들이 비록 한국인이지만 또 다른 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뿌리의 자양분인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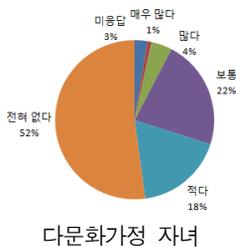
는 응답이 5%로 낮게 나타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부문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반가정 자녀는 한국문화이해(28%)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3>).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27%), ‘자아정체성을 찾는 교육’(16%)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문제와 자아정체성을 찾는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제반 교육 개선방안

본 설문조사의 ‘성적’ 및 ‘국어 성적’에 대한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33%, 47%)이 일반 학생들(55%, 63%)에 비해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에서 뒤진다(<그림 3~6>).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가정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응답이 4%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10%로 나타났다(<그림 7, 8>).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박시균, 2013:71-73).

장덕희 외(2010:132-139)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경제수준은 중하 이하가 50.8%이며, 이들 중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16.2%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하류층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과반을 상회하고 일반 가

16) ‘정체성에 혼란이 온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정에 비해 빈곤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빈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 비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쪽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도 다문화가정의 빈곤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64.9%가 자신의 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정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유아 교육시설에 자녀를 맡기지 않고 한국어의 발음 및 어휘, 문장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데리고 양육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언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¹⁷⁾인 만 6세 이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어 한국어의 발달이 여의치가 않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한국어를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⁸⁾.

이런 이유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일반 과목과 국어에서 실력이 많이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집중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어 지도 및 뒤처지는 일반 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다¹⁹⁾. 하지만 공교육 기관에서의 방과 후 교육은 예산과 시간, 학생들의 선호도 고려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²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친구(52%)를

17) Seliger(1978)와 Long(1990)은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가설을 완화한 다중 결정적 시기(multiple critical period) 또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6세 이전까지는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정양수·김영은, 2005:43-44).

18)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수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생활 한국어'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가정 자녀와 그 차이를 좁히며 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지만 '학습 한국어'에서는 떨어지는 어휘력과 문장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도 일반 가정 자녀들에 비해 열세의 위치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다.

19) 일반 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방과 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한국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뒤처지는 과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20) 학생들의 선호도 면에서도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뽑았다(<그림 16>). 이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일반 가정 자녀보다 친구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에 착안하여 성적이 뛰어난 선배 학생이나 동급생들과 성적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멘토-멘티의 관계로 묶어 주어 멘토를 통해 한국어 및 기타 과목에 대한 지도 및 도움을 받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²¹⁾.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교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도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잘못된 발음을 고쳐주고 인지 상담 등을 해 주는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과 방문 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토론이나 발표지도 등을 해 주는 방문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5).

전술했듯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떨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국어 및 일반 과목 성적, 이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학률²²⁾, 공교육 기관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 등이 나타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36%)은 일반 학생들(65%)에 비해 어머니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림 23, 24>).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신이 학교 교육 및 생활에 있어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21)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레인보우 스쿨’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영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오성배 외, 2013).

22) 2013년 말 현재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전체 취학률 97.2% 대 다문화가정 취학률 93%, 중학교 96.2% 대 75.6%, 고등학교 93.6% 대 76.7%를 기록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전체 평균보다 20% 정도 낮은 취학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교육청 블로그 자료, 2015).

런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이들 자녀의 성적 부진이나 상급학교 진학 포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배려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자녀를 좀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다언어 학교생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언어 학교 홈페이지 구축, 다언어 가정통신문 제작 및 발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²³⁾.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좀 더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얻은 자녀들은 학교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학교 수업 이외에 필요한 교육으로 ‘어머니의 모국 문화 이해’를 50% 가까이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34>). 이는 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하지만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들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교육으로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 및 언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등의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녀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어머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신속하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측면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일반 가정 자녀들도 같은 반 친구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만큼 이들 일반 가정 자녀들에게도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한국문화 이해’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을 수업 시간 등을 통해서 같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같은 반 급우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

23) 미국의 경우 각 급 학교에서 영어를 모르는 학부모가 교사와의 상담 등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의 모국어 구사가 가능한 통역도우미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통신문도 앞면에는 영어, 뒷면에는 스페인어 등으로 인쇄하여 안내하는 멀티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 것이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일반 가정 자녀와 더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²⁴⁾.

4. 결론

다문화가정 자녀의 각급 학교 별 현황을 살펴보고 일반가정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학교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까지를 도출해 보았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2013년 기준 75만명 내외이며 202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으며 정착해 갈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 및 연구는 이들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들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자녀의 (한)국어 교육²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어교육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개별 학습지도나 국어지도의 필요를 느끼고 있어 일반 과목과 국어에서 실력이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 방과 후 집중지도 등 보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선배 및 동급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초등학교학년 이상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 어

24) 본 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교육 방안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논의는 한국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여러 준거 차원의 논의에서는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다. 추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관점과 준거에 기반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5)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한국어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가 앞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 또는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자녀의 소수자화 및 그에 따른 사회문제화를 막기 위해 학습 한국어 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머니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언어 학교생활 안내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하지만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원하고 있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 교육도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가정 자녀들도 동급생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특히 자녀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가정 자녀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반 가정 자녀들의 시각도 동시에 알아 본 데에 의의가 있으나 설문조사 문항의 정교화 등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학생현황』, 교육복지국, 2010.
- 교육부, 『기타교육지표』, 2014. (http://www.moe.go.kr/web/100085/site/contents/ko/ko_0123.jsp?selectId=1085)
- 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2015.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서울시 교육청 블로그 자료, 2015. (<http://seouleducation.tistory.com/1903>)
-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3.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자료』, 2014.
- 오성배, 김경미, 김재우, 서덕희, 오정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

2. 단행본

- 박시균,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투 트랙(two track)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집문당, 2013.
- 정양수, 김영은, 『영어 교수 학습의 원리』, 한신문화사, 2005.

3. 논문

- 구수연,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5호, 열린유아교육학회, 2007, 95-124면.
- 구수연,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의사소통 문제』, 2010 (사)한국언어학회 여름학회, 2010.
- 김선정,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대국대학교외국어교육연구소, 2010, 21-46면.
- 마금선,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교육』, 『세계한국어문

- 학』 창간호, 세계 한국어문학회, 2009, 57-90면.
- 박시균, 최지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어교육(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및 지도방안 연구」, 2012 (사)한국언어학회 여름학회, 2012.
- 박주형,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학위논문, 2010.
- 안병삼, 「중국 조선족 학생의 한국어 도서 취득과 한국어 활용에 관한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195-226면.
- 윤경동,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관식,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개선방안」, 『인문 사회과학연구』 27권,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111-142면.
- 이성순, 「이주여성과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대전지역 한국어교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권, 우리어문학회, 2009, 247-276면.
- 이재분, 김혜원, 이해원, 이혜원, 김혜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현황 및 인식」, 『한국교육』 제36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2009, 3-29면.
-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2010, 123-147면.
- 전재일, 신호선,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4권 3호,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8, 251-283면.
-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 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언어치료학회, 2004, 33-52면.
- 조향록,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이중언어학』 제42호, 이중언어학회, 2010, 243-271면.
- 진선희,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0, 403-428면.

최영환,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4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27-56면.

Long, M. H., Maturational constraints on language development, *Studies in Second Lanaguage Acquisition*, 12, 1990, pp.251-285.

Seliger, H. W., Implications of a multiple critical period hypothesis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In W. Richie (Ed.), *Second Lanaguage Acquisition Research*(pp.11-19), 1978, New York: Academy.

4.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공부를 잘합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5.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한글/국어를 잘합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6.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친구관계 ② 공부 ③ 차별과 편견)
④ 가정형편 ⑤ 기타(구체적으로:)

7.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전혀 없다

8.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9. 어머니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10.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습니까?

- ① 예(이유:))
② 아니요(이유:))

11. 학교생활을 가장 도와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친구 ② 선생님 ③ 가족)
④ 종교 ⑤ 기타(구체적으로:)

1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하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지 않다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이유 :)

❖ 국어교육현황

1.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한 공부시간이 있습니까?(한글/국어 제외)

- ① 예 ② 아니요

2.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한 한글/국어 공부시간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3.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4. 국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은?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쉽다
⑤ 매우 어렵다.

5. 방과 후에 누구와 공부합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 ④ 형제
⑤ 기타(구체적으로:)

6.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 방법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협동 학습 ② 토의 학습 ③ 상황극 학습 ④ 시청각자료 활용 학습
⑤ 기타(구체적으로:)

7.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은?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④ 예체능(구체적으로:)
⑤ 기타(구체적으로:)

8. 어머니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9.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합니까?

-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10. 현재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재미없다
⑤ 전혀 재미없다(이유:)

11.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친구는?

- ① 모두와 친하다 ② 비다문화가정 친구 ③ 다문화가정 친구 ④ 모두와 안 친하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12.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외에서 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장소:) ② 아니요

13.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서 공부하는 게 다른 친구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4. '다문화'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정확히 안다 ② 안다 ③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14-1 '다문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좋다(이유:)
② 보통이다(이유:)
③ 안좋다(이유:)

【국문초록】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중 언어적 환경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 및 제반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실상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학교 내에서의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교육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자녀들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두 그룹을 비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학교교육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일반가정 자녀, 다문화교육

【Abstra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Situa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General Family Children in 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Park See-gyoon & Choi Ji-eun

The authors, i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survey agains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from general Korean families. The survey results showed some tips for future improvement of Korean education for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o that, the authors could find out some details of the students' school lives, thei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subjects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s and schools and their learning opportunities from the survey results. Finally, the authors tried to elicit some suggestions for the better Korean education and their school lives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Key word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education for L1 speakers, Korean education for L2 speakers, students from general Korean families, students' school lives, multicultural education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